

성림월산과 불국사 선원*

- 불국사 선원 개설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중심으로 -

석길암**

• 목 차 •

I. 들어가는 말

II. 불국사 선원 개설 전후의 상황

- 1) 불국사 창건의 구상에 대하여
- 2) 창건 이후~조선시대의 불국사
- 3) 일제 강점기와 선원 개설 전후의 불국사 중수

III. 불국사 선원 개설과 성림월산

- 1) 한국 근현대 불교의 전개와 성림월산, 그리고 그 가풍
- 2) 한국불교의 전통에 대한 인식
- 3) 불국사 복원공사와 불국선원 불사
- 4) 불국선원의 개원과 의미

IV. 맺는 말

* 이 논문은 2019년 9월 1일, 월산문도회가 주최하고 대각사상연구원이 주관한 <월산대종사의 생애와 삶>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임.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조교수.

© 『大覺思想』 제32집 (2019년 12월), pp.175-203.

한글요약

불국사가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은 1969년 5월 ~1973년 7월까지 진행된 불국사 복원공사를 통해서이다. 하지만 신라의 불교문화를 대표하는 사찰로서의 불국사가 아니라, 현대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사찰 중의 하나로서 불국사를 인식하고자 한다면 불국사 선원의 개설과 그 전개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불국사 선원의 개설과 수좌양성에 전력을 다했던 월산스님의 가풍과 불국사 선원의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그러한 점에 주목하여 ‘불국사 복원공사’와 ‘불국사 선원의 개설 및 운영’이 서로 다른 역사문화적 배경 위에 서 있는 것임을 해명하였다. 곧 창건 이후부터 1973년에 마무리되는 불국사복원공사에 이르기까지 불국사 가람 조영에 중심이 된 사상적 토대와 불국사 선원 건립의 사상적 토대가 서로 다른 점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이 지점으로부터 월산스님의 불국사 선원 불사와 운영의 의미를 명확히 짚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불국선원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범룡스님, 송담스님, 일타스님, 정일스님, 혜정 스님 등 여러 명안종사가 거쳐 가면서 선풍을 떨쳤다. 무엇보다 경허 만공 보월 금오스님으로 이어지는 덕숭선맥을 이은 월산스님의 지도와 가르침으로 불국선원은 일시에 번성기에 들었다. 선원이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안착한 것은 무엇보다도 불국선원의 조실로서 바깥살림보다 안살림에 치중했던, 그랬기에 찾아드는 납자들의 제집에 소홀하지 않았던 월산스님의 원력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월산, 금오, 불국사, 불국사선원(불국선원), 신라불교문화, 현대한국불교, 가람 조영

I. 들어가는 말

한국불교는 전래와 수용의 초기 단계 이후 다양한 변화를 겪으며 오늘에 이르렀다. 불교 수용 이후 각 시대마다 새로운 불교의 흐름이 더해졌고, 그 새로운 흐름은 이전의 흐름과 융합되면서 전통의 굵은 물줄기에 새로운 힘을 더했다. 우리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사찰 중의 하나로 거론하는 불국사 역시 그 다양한 변화의 흐름을 겪어온 산 증인이라 할 것이다. 창건 이후, 불국사는 통일신라의 불교인들이 그렸던 불국토를 이 땅에 형상화한 대표적인 가람으로 자리매김했다.

1300년 가까운 역사인 만큼, 불국사 역시 시대의 부침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창건 이후 조선 전기에 이르기까지 중수(重修)한 기록이 남아있다. 특히 임진란 초기(1593년 5월)에 대웅전과 극락전, 자하문 그리고 금동불상과 석교, 석탑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물이 왜군의 손에 일시에 소실되고 말았다. 창건 이후 약 1천년에 이르는 동안의 중수와 복원에 관한 기록, 특히 임진왜란 이후의 복원중수에 관한 것은 영조 시대의 동은(東隱)이 지은 『불국사고금역대기(佛國寺古今歷代記)』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불국사와 인연을 맺었던 선현들 역시 적지 않다. 『삼국유사』에 전하는 「향진」의 기록에 따르면, 창건 당시에는 표훈(表訓)과 신림(神林)의 두 성사(聖師)가 머물렀다고 전한다. 고려전기에는 화엄종의 원경왕사 낙진(樂眞, 1045~1114)이 1108년에 불국사에 주석했다는 기록이 전하고, 고려후기에는 유가종의 흥진국사 혜영(惠永, 1228~1294) 역시 1274년부터 2년 동안 주석하였다는 기록이 전한다. 그리고 혜영보다 조금 늦은 시기의 인물인 유가학승 해원(海圓, 1262~1340) 역시 불국사에서 주석하였던 승려라고 전한다. 이 외에도 신라 말의 고운 최치원(857~?)은 불국사와 꽤 많은 인연을 맺고 있고, 고려 말의 문인인 이규보와 조선 전기 선승인 설잠(雪岑, 1434~1493) 등도 불국사 참배의 기록을 남기고 있다.

굳이 서론에서 창건으로부터 중수, 복원 불사 등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논자가 다르고자 하는 주제 때문이다. 본 논문의 주제는 ‘성림월산과 불국사 선원’, 곧 성림월산이 불국사 선원을 창설한 배경과 선원의 특징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 것인데, 불국사에 선원이 별원으로서 독립된 공간을 구획하여 개설된 것은 월산의 선원 개설이 거의 최초라고 추정된다. 추정하기로는 조선후기에 불국사에 수선(修禪)을 위한 전용공간이 없었다고 단정 지어서 말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¹⁾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불국사에 수선(修禪)을 위한 별도의 전용공간이 조성되었다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성림월산의 불국선원 개설이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선원을 개설한 최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불국선원의 개설은 불국사 창건 당시의 조영배경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국사 선원의 개설은 근현대기 한국 불교 승려들의 한국불교전통에 대한 인식의 중요한 측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할 수 있다. 조선전기 이후 한국불교는 점차 선교양종(禪敎兩宗)으로 통폐합되었고, 실질적으로는 선종 중심으로 불교 전체가 재편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조선후기인 18세기 말을 전후하여 일시 화엄을 중심으로 하는 교학불교가 흥성하기도 하지만, 그 경우에도 본령이 선종에 있었음은 부정하기 힘들 것이다. 또한 근대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로 추앙받는 경허(鏡虛, 1849~1912) 이후의 일제강점기 불교의 전개 및 봉암사결사를 출발점으로 하는 현대 한국불교의 전개는 결과론적 측면에서 본다면 선문(禪門) 중심의 전통인식과 전개를 보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본다면 불국사 선원의 개설은 근현대 시기 한국불교사 전개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당연한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1) 『불국사고금창기(佛國寺古今創記)』에는 영조 25년(1749)에 대인(大仁)이 일광당 선실을 중건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로 보면, 별개 공간으로서 선원이 설치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선(修禪)에 초점을 둔 공간은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같은 점, 곧 창건 이후부터 1973년에 마무리되는 불국사복원공사에 이르기까지 불국사 가람 조영에 중심이 된 사상적 토대와 불국사 선원 건립의 사상적 토대가 서로 다른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지점으로부터 성림월산의 불국사 선원 개설이 가지는 의미를 추궁해보고자 한다. 이 같은 접근은 불국사선원이 개원하는 시기와 73년 6월에 마무리되는 불국사 복원공사 시기가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 주목한 데서 비롯된다. 불국사 복원공사와 불국사 선원 불사는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지만, 그 지향점은 다른 데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지향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불국사 선원 불사와 운영의 의미를 명확히 짚을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 점을 해명하기 위해서 아래에서는 불국사 창건 및 역대에 걸친 중수 및 복원불사의 지향점을 먼저 간략히 정리한다. 그런 연후에 불국사 선원 개설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스님이 선원 운영에 있어서 지향했던 점이 무엇이었던가에 대하여 정리해보고자 한다.

II. 불국사 선원 개설 전후의 상황

중국불교와 한국불교로 대표되는 동아시아불교에 있어서 가람 곧 사원 조영의 가장 큰 특징으로 주목할 수 있는 것으로, 필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는 대승경전의 사유구조를 반영하는 사원조영이다. 또 한 가지는 선종의 출현과 발전에 따라 나타나는 선원(禪院) 곧 선종사원의 조영이다. 사원의 조영에 있어서 인도불교의 사원 형태와 구조가 동아시아 불교에도 반영되는 것임은 기본적으로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사원에서 중요한 핵심구조로 등장하는 탑의 조영이라든가, 선굴(禪窟)의 조성이라든가, 승방(僧房)이라든가 하는 요소는 인도 불교에서

사원의 등장 이후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불교가 수용되고 발전하던 초기의 사원은 대체로 추선과 공덕을 위한 예배 그리고 좌선을 위한 수행처의 역할을 동시에 겸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국 초기의 불교사원이 서역으로부터 전해진 석굴사원의 형태를 답습하고 있었고, 많은 경우 그러한 석굴사원들이 추선과 예배의 용도는 물론 선정수행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었음을 전하는 기록들²⁾이 존재한다. 이로 보면, 초기의 중국불교 사원은 인도와 서역의 그것을 답습하면서 점차 중국적인 형태로 변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런데 동아시아 불교의 사원에는 이들 기본적인 요소 외에 특정 대승경전의 사유구조 혹은 실천과 신행의 구조를 반영하는 사원이 등장한다. 선종(禪宗)의 사원인 선원(禪院) 역시 단순히 인도의 선정수행을 위한 선굴(禪窟)이라는 단순한 형태에서 벗어나, 선종(禪宗)의 출현과 선종 내부의 전승방식에 따른 독특한 구조를 반영하는 새로운 사원의 형태로써 동아시아 불교에 등장한 것이다. 8세기 중반에 이루어진 불국사 창건 당시의 조영은 이 중에서도 대승경전의 사유, 실천, 신행의 구조를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먼저 불국사의 조영과 중수 및 복원의 역사에 대해 조영의 사상적 배경이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간략히 서술한다.

1. 불국사 창건의 구상에 대하여

불국사 창건에 있어서 기반이 된 경전 혹은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2) 『續高僧傳』, 「釋曇曜」(T50, 427c), “釋曇曜, 詳何許人也。小出家, 攝行堅貞風鑒閑約。以元魏和平年, 住北臺昭玄統, 綏縉僧衆, 妙得其心。住恒安石窟通樂寺, 卽魏帝之所造也。去恒安西北三十里, 武周山谷北面石崖, 就而鑄之, 建立佛寺, 名曰靈巖。龕之大者, 舉高二十餘丈, 可受三千許人。面別鑄像窮諸巧麗, 龕別異狀駭動人神。櫛比相連三十餘里, 東頭僧寺恒共千人。”
『魏書』, 「釋老志」권1, “高祖踐位, 顯祖移御北苑崇光宮, 覽習玄籍。鹿野佛圖於苑中之西山, 去崇光右十里, 巖房禪堂, 禪僧居其中焉。”

는 학계에서 의견이 분분한 편에 속한다. 현재 선원이 있는 영역을 제외하면, 불국사 전체는 크게 대웅전 영역과 극락전 영역 그리고 비로전 영역 및 관음전 영역으로 구획되어 있다. 창건과 이후의 중수 중창 과정을 거친 후에 불국사 전체 영역의 확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이 네 영역 좁게는 대웅전 영역과 극락전 영역을 앞으로 하고 비로전 영역을 뒤로 하는 기본 구조가 핵심이라고 하는 것에는 학계에 크게 이견이 존재하는 것 같지는 않다. 각 영역이 각기 주존이 되는 석가모니불, 아미타불, 비로자나불을 모신 전각을 중심으로 구획되고, 부속되는 전각과 탑 그리고 석조물 등에도 거기에 따른 명칭이 전해져 오고 있다.

한국불교연구원에서 간행한 『한국의 사찰1 -불국사』에서는 비로전(毘盧殿)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불국사의 이름에 華嚴이란 두 글자를 첨가한 바 있었고, 또 義湘大師와 그 제자 神林과 表訓 등이 화엄사상에 밝은 스님들로서 이 절과 관련을 가졌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불국사가 華嚴의 교리를 기본 배경으로 하는 사찰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계의 견해였지만,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불국사의 교리적인 배경은 단순히 화엄사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고 또 화엄이 그 사상 배경의 주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비로전의 위치나 규모로 보아 능히 짐작할 수 있다.”³⁾고 지적하고 있다. 화엄을 의미하는 비로전의 규모와 위치로 볼 때, 화엄경 및 화엄사상이 불국사 조영에 있어서 주류는 아니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김상현은 “불국사가 화엄의 연화장 세계에 대한 상징적 표현임은 두루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불국사의 가람배치에는 연화장 세계와 더불어 석가불의 영산 불국(靈山佛國)과 아미타불의 극락 세계 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비로전, 무설전 등은 비로자나불의 침묵을 상징하는 화엄적 표현이다. 석가탑과 다보탑은 『법화경』에 토대

3) 한국불교연구원 저(1974), 『한국의 사찰1 -불국사』(일지사), 73쪽. 참고로 이 책의 집필에는 이기영, 이민용, 정병조, 장충식 등이 참여하였다.

한 석가불의 사바 세계 불국을 그리고 안양문과 극락전은 『아미타경』에 근거한 극락 세계 정도를 각각 표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고 말한다. 기본적으로 화엄경의 사상을 중심으로 불국사 전체의 조영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사례이다.

이상 주로 화엄적 배경에 대한 설명을 위주로 소개하였지만, 화엄경의 사상을 조영의 기본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의 여부는 본 논문의 논지에서는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이 되었든, 불국사의 창건 당시 조영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엄경』, 『아미타경』, 『법화경』 같은 여러 대승경전과 그 대승경전의 사상에 대한 이해가 조영 설계의 기본적인 배경이 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⁵⁾

지금까지 학계에 제출되어 있는 다양한 관점들은 대부분 불국사의 조영이 특정의 대승경전 혹은 다수의 대승 경전이 표출하고 있는 세계관을 투영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다만 여기에는 초기 중국 불교의 사원에 보이는 선정수행을 위한 특별한 고려를 담고 있는 조영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특기해두고자 한다. 아울러 빠르게는 동산법문 시대로부터 9세기 초를 전후하여 확산되는 중국 선종 사원의 특징도 가미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2. 창건 이후 ~ 조선시대의 불국사

4) 김상현 외(1992), 『불국사』, 대원사, p.9. 거의 동일한 서술이 김상현(1991), 「석불사 및 불국사에 표출된 화엄세계관」, 『신라화엄사상사연구』, 민족사, pp.203-218. 에도 선행한다.

5) 그리고 특정 경전에 의거한 조영 여부에 관계없이, 불국사가 화엄종의 사찰이었는가 혹은 유가종의 사찰이었는가에 대한 논의 역시 학계에 논란이 있는 부분이다. 특히 김상현이 주로 화엄의 입장에서 불국사를 파악하고 있는 것과 달리(김상현, 1991), 김복순의 경우 주로 유가계 불교와의 연관성 아래에서 불국사를 파악하고 있다(김복순, 1992, 「신라 유가계 불교 -8·9세기를 중심으로-」, 『한국 고대불교사 연구』, 민족사, 2002, 재수록), 김복순의 경우, 사원의 조형 역시 유가사찰의 입장에 의한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의 의견에 따르든, 불국사의 조영에 있어서 기반이 되는 것이 대승경전과 그 해석에 따른 표현이라는 연계성은 부정하기 힘들다.

창건 이후의 9세기부터 조선후기 특히 1740년 무렵까지의 중창, 중수, 임진왜란으로 인한 소실 이후의 복원 등에 대해서는 『불국사고금창기(佛國寺古今創記, 일명 佛國寺古今歷代記)』(이하 『고금창기』라 약칭함)에 조선 시대의 관련 기록이 상당히 상세하게 전하고 있다. 이 외에 최근에 복원되어 공개된 『佛國寺西石塔重修形止記』 등의 자료를 통해서 고려 전기인 11세기 초의 불국사 중수에 관한 기록들이 확인된다. 약 1000년 간의 중수와 복원에 있어서 사찰 창건의 기본적인 사상 배경의 변경을 의미하는 중수기록은 적어도 현재로서는 발견하기 힘들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우선 창건 이후로부터 1740년까지의 복원 및 중수 기록을 담고 있는 『고금창기』의 기록을 참고하면, 적어도 임진왜란 때의 왜의 병화로 인한 소실 이전의 기록에서 특별히 새로운 건물을 조성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고금창기』에 기록하고 있는 751년 기준의 건물이 모두 751년 당시에 조성된 것이라고 보기도 역시 힘들며, 후대에 첨가된 부분이 적지 않게 『고금창기』에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⁶⁾ 지금의 불국사 배치 혹은 기록에 이름이 남아있긴 해도 위치가 확인되지 않는 전각들이 있는데 거의 45종에 이른다.⁷⁾

이 중에 임의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몇 전각을 거론하면 규모가 큰 것으로 32간에 이르는 오백성중전(五百聖衆殿)과 25간의 천불전(千佛殿) 및 22간의 만세루(萬歲樓), 규모가 작은 것으로 시왕전(十王殿)과 십육응진전(十六應眞殿) 및 문수전(文殊殿), 그 외에 규모를 알 수 없지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전각으로 왕자문설선당(王子問說禪堂)과 심검당(尋劍堂) 등이 있다.

현존 기록상 오백나한 신앙과 관련한 가장 빠른 우리나라의 기록은 고려 태조 6년, “여름 6월 계미 복부경(福府卿) 윤질(尹質)이 양(梁, 후량)에 사신으로 갔다가 귀국하면서 오백나한(五百羅漢)의 화상(畫像)을 바치

6) 한국불교연구원(1974), p.23.

7) 같은 책, p.23.

자 명하여 해주(海州) 숭산사(崇山寺)에 두게 하였다.”⁸⁾는 기록이다. 이 기록을 기준으로 본다면, 불국사의 오백성중전은 창건 당시보다는 이후에 조성된 전각일 가능성이 있다. 대체로 나한신앙이 우리나라에 확산되는 시점을 생각한다면, 십육용진전이나 오백성중전은 신라시대 이후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왕자문설선당(王子問說禪堂)과 심검당(尋劍堂)이다. 이 두 전각은 그 명칭으로 볼 때, 수선(修禪)을 목적으로 한 전각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들 전각 역시 신라 시대에 조성되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된다.

또 『고금창기』에는 중창 혹은 중수 외에 창건(創建), 건립(建立), 시창(始創) 등으로 설명하는 전각들이 있다. 순치 4년(1647)의 “十六羅漢殿을 세우고 等像을 만들다”는 기록이나, 강희 13년(1674)의 “十王殿을 창건하였다.”는 기록, 강희 10년의 조사전을 처음 세웠다는 기록, 옹정 9년(1731) 첨성각(瞻星閣)을 법당 동쪽 모퉁이에 새로 세웠다는 기록 등이 남아있다.

이들 기록은 『고금창기』에 751년 창건 당시의 전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 온전히 751년 당시의 전각만은 아님을 보여준다. 다만 『고금창기』에 기록하고 있는 왕자문설선당(王子問說禪堂)과 심검당(尋劍堂) 그리고 건륭 14년(1749)의 광일당선실(光日堂禪室)의 중창 기록 등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어느 즈음에 불국사 내부에 수선(修禪)을 위한 공간이 조성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기록으로서 주목된다.

3. 일제 강점기와 선원 개설 전후의 불국사 중수

황수영은 「불국사의 창건과 그 연혁」에서 1805년의 비로전 중수 이후 일제의 1924년 전후의 개수공사 때까지의 불국사 상황을 “이 같은 퇴락

8) 『고려사』, 「세가」권제1, 태조 6년 6월조.

의 정도는 더욱이 19세기 말에 이르러 尤甚하였다. 1902년 일본인 건축학자 關野 貞 박사는 경주를 찾아 불국사를 조사하였고 그 기록과 사진을 남겨놓고 있다. 그리하여 한일합방을 전후하여서는 불국사는 겨우 소수의 승려가 있을 뿐 거의 空寺의 비운을 당하였다고 전한다. 그리하여 이때부터 1910년에 이르는 사이에 無說殿이 倒壞되었으며, 사중의 석조물, 예컨대 다보탑의 석사자나 비로전 앞의 석조부도(光學浮圖)가 일본으로 반출됨에 이르렀던 것이다. 또 자하문에 연결되었던 전면의 廊廡도 1905년경에 붕괴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위기는 일정기에 들어서 그들이 먼저 석굴암을 해체수리한 후에 이르러 1924년경 불국사에 대한 대규모의 개수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사원의 면모를 그런대로 일신함에 이르렀던 것이다. …… 불국사는 일정초 그 당시의 남은 규모만을 따르던 중수가 있었고, 그 후에도 같은 규모만을 오랫동안 유지하여 왔을 뿐 새로운 가람을 복원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⁹⁾고 정리하고 있다.

이것은 19세기 초 이후 일제강점기까지의 불국사 중수에 대한 간단한 정리라고 할 수 있는데, 1911년 조선총독부가 조선불교의 침탈을 염두에 두고 제정한 「사찰령시행규칙」의 30본산에 기림사를 본사로 그리고 불국사를 기림사의 말사로 소속시키고 있는 데서도 불국사 사격의 쇠잔함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불국사가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은 1969년 5월~1973년 7월까지 진행된 불국사 복원공사를 통해서이다. 다만 이때에도 창건 당시의 옛 모습 혹은 전성기의 옛 모습을 완전히 복원한 것은 아니었다. 복원 공사 이전에 대웅전, 극락전, 자하문, 범영루, 안양문 등이 남아 있었는데, 이 중 범영루는 새로 짓고 나머지는 부분적인 보수와 단청이 이루어졌다. 또 옛 터에 무설전, 비로전, 관음전 등을 복원하고, 범영루, 좌경루, 대웅전 일곽의 회랑, 극락전 일곽의 회랑, 비로전

9) 황수영(1976), 「불국사의 창건과 연혁」, 『불국사복원공사보고서』,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pp.35-36.

앞의 문, 관음전 앞의 문, 일주문 등을 신축하였고, 석축과 계단을 크게 수리하였다.¹⁰⁾

이상 창건 당시부터 1973년에 이르기까지의 가람배치의 변화상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사찰 창건 당시 조영의 배경으로 삼았던 경전적 배경으로부터 크게 벗어나는 변화는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오백성중전이나 십육응진전 같은 경우는 시대의 변화와 그에 부응하는 신앙적 요청에 따른 추가적인 배치였다고 생각된다. 또 이미 지척한 바와 같이 왕자문설선당(王子問說禪堂)과 심검당(尋劍堂) 그리고 광일당선실(光日堂禪室)의 경우는 불교사상 및 수행실천의 새로운 흐름을 따른 전각의 조영이라고 생각되지만, 그 전각들이 대웅전·극락전·비로전·관음전 영역 안에 배치되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마저도 불국사 복원공사에서는 복원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취를 찾을 수 없는 상태이기도 하다.

어떻게 보면 광복 이후 국가 차원에서 진행된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의 문화재 복원역사였던 불국사 복원공사의 경우에도, 실은 최소한 범위에서 이루어진 복원에 그쳤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시대에 따른 불교의 변화와 그 변화에 따른 불국사의 변천을 고려한다는 인식은 크게 고려되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러한 측면이 성림월산이 불국사에 주지로 부임하면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었던 문제의식 중의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러한 문제의식이 불국사 선원의 개설이라는 새로운 불사로 나아가는 한 계기였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아래에서는 그 점에 대해 서술하기로 한다.

Ⅲ. 불국사 선원 개설과 성림 월산

10) 『불국사 복원공사보고서』, pp.110-161 참조.

성림당 월산 대종사(聖林堂 月山 大宗師, 1912~1997)가 현대 한국불교의 흐름에서 고비마다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짊어졌었고, 그 고비마다 주역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음은 다시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가 사자상승한 현대 한국불교의 법맥이 그러했고, 그가 마주쳤던 현대 한국불교사의 주요 분기점이 그럴 수밖에 없는 계제였다고 하더라도, 그 고비마다 능동적 대처를 마다하지 않았음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불국사 선원의 개설은, 그가 계승했던 법맥의 정신, 그리고 그가 생각했던 한국불교의 전통과 정체성에 대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해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아래에서는 그 점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되며, 특히 한국불교의 전통 인식이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어 서술한다.

1. 한국 근현대 불교의 전개와 성림월산, 그리고 그 가풍

경허-만공-보월-금오로 이어지는 근현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금오문종의 법맥을 계승한 선사, 법주사 총지선원에서 남자들을 제집하는 것을 시작으로 불국사, 금산사, 대승사, 불영사 등 제방선원 조실로서 남자를 제집함에 삼십 여년을 영일했던 조실스님, 그것이 스님을 표현하는 수식어이다. 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봉암사 결사에 참여하고 종단 정화운동의 중심부에서 활동하였으며, 법주사와 신흥사, 동화사와 불국사의 주지 소임은 물론 총무원장직까지 수행하였던 한국불교 현대사의 주역 중의 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런 스님의 수행자로서의 삶은 1943년 은사이자 법사인 안변 석왕사에서 금오스님을 만나면서 시작된다.

“집도 절도 가질 수 없으며, 처자와 자식을 가질 수 없으며, 재물도 권세도 가질 수 없으며, 그 저 빈손인 것이 수행자의 삶인데 그대는 이 길을 가겠는가?” 그래도 청년의 대답은 확고했다.

이에 금오선사는 청년을 향해 몇 마디 던졌다. “무슨 까닭으로 출가할 생각을 했는가?”

“오래 전부터 출가 수행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출가수행자의 길이 편하고 좋은 것만은 아닐세. 형극의 길이라는 것을 짐작이나 하고 있는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게. 경솔하게 출가하면 후회만 하게 되느니...”

“결코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스님 문화에서 수행하게 허락해 주십시오.”¹¹⁾

출가를 열망하는 청년과 그를 맞이하는 스승 간에 흔히 오갈 법한 대화이다. 하지만 이 대화는 단순히 그렇게만 받아들일 만한 것은 아니다. 일제 강점기의 말미에 이른 이 시기에는, 조선에 비구승은 승려라고 자처하는 이들 중에 극히 일부에 불과할 뿐이었다. 게다가 출가한다고 하더라도 비구승이 수행할 만한 사찰은 더더욱 드물었던 시절이다. 대부분의 사찰이 일본불교의 영향 아래 대치승이 되었던 이들의 관할 아래 있었던 까닭이다. 그런 때에 비구승이 되겠다고 나섰으니, 그에 대한 스승의 대답은 ‘형극의 길’이라도 택하겠냐는 것일 수밖에 없는 시절이기도 했다. 단순히 출가수행 자체만이 아니라, 당시의 조선불교에서 비구승이 가야 할 길의 외적 조건조차 형극일 수밖에 없는 시대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문답이기도 한 까닭이다.

이 같은 대화를 거쳐 제자를 맞아들인 금오스님은 석왕사를 떠나 소요산 자재암을 거쳐 도봉산 망월사에 이르러 행장을 풀고 제자와 함께 정진에 들어가기에 이른다. 1944년의 일이고, 여기에서 스님은 출가하여 ‘월산(月山)’이라는 법명을 받게 된다.

첫 제자를 맞이한 선사는 제자에게 화두를 건네며 참선정진을 지도했다. “참다운 수행자란 첫째도 참선, 둘째도 참선이며, 셋째도 참선이다. 그러므로 오직 참선 수행을 으뜸으로 삼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금오선사가 금강산 마하연에서 도암스님에게 받았던 화두, ‘시심마(是甚麼)’를 내렸다. 월산스님은 화두를 받아 정진했다.¹²⁾

11) 박부영, 「금오스님과 불교정화운동②」, <불교신문> 2015년 2월 4일 16면.

스승의 가르침은 제자에게 화두가 된다. 받은 화두가 아니라, 참선 수행을 으뜸으로 삶의 시시각각을 놓치지 않고 정진하라는 그 부분이 수행 정신의 중요한 토대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한번은 법문 중에 1950년 금오스님을 모시고 완도에 갔을 때 “일러 보아라. 이 돌맹이가 과연 마음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는 말씀에 대답하지 못한 일화를 들고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그날 나는 참으로 부끄러웠다. 중노릇을 하고 참선을 한다면 돌맹이가 마음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도 모르다니 얼마나 건성건성 살아온 것인가. 그래서 다음부터는 정말로 앞뒤를 돌아보지 않고 화두를 참구하는데 매달렸다. 그 뒤 스님이 열반에 들기 전에 법주사에서 문도들을 모아놓고 오른 손을 들었는데 그때서야 나서서 대답할 수 있었다. 그 때 얘기는 문도들이 다 잘 아는 것이니 여기서는 하지 않겠다. 내가 여러 문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화두참구를 목숨 걸고 하라는 것이다.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사람은 차라리 중노릇을 그만두는 것이 시주밥 덜 축내는 길이다. 그대들은 부디 내가 일러주는 대로 하라.¹²⁾

스님은 누누이 참구정진을 강조하고 있거니와, 스님이 강조한 수행가풍은 다음과 같은 현 불국선원장 종우의 회고에서 잘 드러난다.

조실스님은 용맹정진이다, 묵언한다, 불식한다, 그런 것은 안좋아 하셨어요. 일상생활이 정진이 되어야 한다, 자나 깨나 누구를 만나나 항상 정진을 강조하셨어요. 정진이 삶과 하나가 되는 것, 기도하는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면 생활이 기도가 되듯이, 오나가나 항상 정진이지, ‘불식한다, 묵언이다’ 하는 것은 정신이 빼앗기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조실스님이 차를 타고 가실 때에도 자기도 모르게 ‘이~’ 하실 때가 있거든, 그것이 정진하는 말인데, ‘이 뗏고’ 하는 말을 길가다가 여행하다가도 항상 하시는 것이죠. 스님은 따

12) 박부영, 「금오스님과 불교정화운동②」, <불교신문> 2015년 2월 4일 16면.

13) 월산문도회(1998), 『월산선사법어집』, 「서산에 해가 지면 동쪽에 달이 뜬다」, p.307.

로 강조하신 것은 없으시고 ‘항상 타성일편(打成一片) 정진하라’ 그것이 내가 볼 때 스님 사상이지.¹⁴⁾

이상의 내용에서 스님이 지향하신 바 수행가풍을 어느 정도 짐작해볼 수 있다. 스님의 삶이 ‘행역선(行亦禪)·좌역선(坐亦禪)의 자세로 바깥살림이 아니라 안살림 수행에 간단이 없었다.’¹⁵⁾는 행장의 표현은 이 같은 본분납자로서의 스님의 삶이 그렸던 지향점에 대한 표현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된다. 1968년 은법사(恩法師)인 금오로부터의 인가 이후, 스님의 삶이 법주사 총지선원(聰持禪院)에서 납자들을 제접하기 시작하여 불국사, 금산사, 대승사, 불영사 등 제방선원의 조실로서 납자들을 제접하는데 초점이 두어져 있는 것 역시 그러한 삶의 일상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스님이 계승한 법맥과 그 계승한 법을 따라 실천한 궤적을 보자면, 간화선을 참구하는 본분의 수행자 그대로의 모습이고, 복원공사 직후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자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한 불국사에 주석하면서부터 곧바로 선원을 개원하려 했던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보아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2. 한국불교의 전통에 대한 인식

고려 말의 삼화상 이후, 한국불교는 점차 임제종 법통을 중심으로 하는 형태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는 조선 초기의 불교의 종파 통합을 통한 불교계의 정리과정과 맞물려서 선교양종(禪敎兩宗)으로 통합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임제종 계통의 선종이 조선불교의 중핵을 이루게 되는 흐름과 관련되어 있다.

14) 필자는 2019년 8월 5일, 본 논문의 작성을 위해 불국사 종무실에서 종우스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회고담의 일부이다.

15) 월산문도회(1998), 『월산선사법어집』, 「행장」, p.365.

이러한 흐름은 근현대 불교에 있어서 선종의 중흥조로 등장하게 되는 경허를 거쳐서, 1910년 10월의 한국불교의 원종과 일본의 조동종이 원종종무원의 인가를 목적으로 연합맹약을 성사시키면서, 그 반발로 일어나는 임제종 운동의 주체들에게도 동일하게 계승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 임제종 운동은 비록 실패로 일단락되지만, 임제종 운동에 참여하였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1921년의 선학원 창설로 이어지게 된다.

월산의 은사가 되는 금오스님은 1935년 이후 안변 석왕사, 서울 도봉산 망월사, 청계산 청계사, 지리산 칠불선원, 모악산 금산사, 팔공산 동화사, 그리고 선학원 조실을 역임하였던 인물이기도 하다. 특히 정화운동 전후에는 선학원을 대표하는 조실의 입장에 있었다. 금오스님이 정화운동의 핵심부에서 역할을 맡게 되었던 것은 1954년 전국비구승대회 추진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부터였다. 정화운동 전반기에 금오스님이 그 핵심 역할을 맡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적이 있다.

첫째, 선학원이 비구승들의 본찰인데 그 대표가 금오스님이었다는 사실이다. 선학원은 일제 때 우리 민족 고유의 임제선 전통과 독신비구승단을 지키기 위해 비구승 지도자들이 나서 세운 비구승의 본산이었다. 해방 후에도 대처승들이 중앙과 사찰을 장악해, 마음 놓고 공부할 도량은 물론 먹을거리도 없었던 비구승들이 서울에 가면 머물 곳은 선학원과 대각사 밖에 없었다. 선학원 조실이었던 금오스님이 자연스럽게 수좌들로부터 정화운동의 대표역할을 부여받은 것이다.

둘째, 금오스님은 그 이전에도 수좌의 대표였다는 점이다. 금오스님이 수좌들의 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신 스스로가 가장 모범적인 수좌상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스님은 경허-만공-보월로 이어지는 한국 정통의 간화선 맥을 이었으며, 청정 비구승이며, 계율에 엄격한 율사였다. 그리고 수행생활에서도 한 치의 빈틈이 없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스님은 일제시대 젊은 적부터 선원의 조실로 추대돼 제자들을 지도했다.¹⁶⁾

16) 박부영, 「금오스님과 불교정화운동②」, <불교신문> 2014년 11월 1일 11면.

한국 근대를 대표하는 전통 간화선맥의 계승자라는 점, 청정 비구승이 자 율자였다는 점, 그리고 일제 강점기부터 여러 선원의 조실을 역임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서울에서 비구승들이 머물 수 있는 두 개의 공간 중 한 곳이었던 선학원의 조실이었던 점 등이 반영되었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보면 그러한 범맥의 계승자였던 월산이 한국불교의 전통에 대해 간화선종을 중심으로 인식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고도 할 수 있다.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기치를 내걸고 1948년에 이루어진 봉암사 결사는, 부처와 조사의 교법이 파괴된 현실에 대한 극복의 필요성이라는 수좌들의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한 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일제 식민지 불교의 잔재청산 및 교단의 혁신이 좌절되었던 현실의 극복, 한국 불교전통의 복원을 목표로 하였다. 봉암사 결사는 공주규약을 바탕으로 청정수행과 간화선 위주의 수행을 표방하였으며, 그 자체가 봉암사 결사에 참여한 구성원들의 한국 불교 전통과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운동은 비록 미완으로 끝났지만, 불교정화운동의 모태가 되었으며, 나아가 조계종으로 대표되는 현대 한국불교의 중요한 원천으로 작동하게 되었다.¹⁷⁾

인용문은 1948년 봉암사 결사에 대한 간략한 정리인데, 봉암사 결사의 지향점 역시 비구승 중심의 청정수행과, 간화선의 수행, 그리고 대처로 상징되는 일본불교의 잔재에 대한 청산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지향은 일면 임제종운동으로부터 선학원으로 이어지는 일제 강점기 비구승들의 수행가풍 및 전통 인식과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봉암사 결사는 그대로 정화운동의 모태로 작동하게 된다. 월산 역시 이 봉암사 결사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어진 정화운동의 중심부에서 활동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한국불교의 전통에 대해 임제종 가풍의 간화선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17) 김광식(2006), 「봉암사 결사의 전개와 성격」, 『한국 현대불교사 연구』, 불교시대사, pp.72-76.

이와 같은 한국불교의 전통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인가 전이나 이후에나 행역선(行亦禪)·좌역선(坐亦禪)하는 수행자세와 그것을 핵심으로 하는 수행가풍의 강조 등을 고려할 때, 불국사 주지로 부임하는 순간 불국사 선원의 개원은 필연적이고 예견된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3. 불국사 복원공사와 불국사 선원 불사

앞 두 절에서 불국사 선원을 개원하게 되는 스님의 사상과 수행에 있어서 드러나는 배경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그런데 이 같은 측면에서 본다면, 불국사 복원공사와 그 직후에 부임하면서 시작되는 스님의 불국사 선원 개원은 서로 대비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먼저 불국사 복원공사의 성격을 검토해보자.

우리 역사상 가장 빛난 문화의 황금시대는 통일신라 시대였다. …… 이 시대 문화유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석굴암과 불국사다. …… 이제 불국사 복원의 큰 의의는 첫째 민족문화유산의 보존사업이고 둘째 호국하는 신앙정신의 계승이며 셋째 전통있는 민족의 슬기로운 문화를 선양하고 보급하는 터전을 만든 것이다. 우리는 불국사에서 처음으로 신라 가람의 복원된 원형을 찾아보게 되었으며, 새로운 창조의 기반으로 자주적 민족정신의 구현도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석가탑, 다보탑을 위시하여 백운교, 청운교, 연화교, 칠보교 등 남아 있던 석조물과 신라 금동불상 등이 복원가람과 함께 규모있고 조화있게 본래의 의도에 따라 그 가치가 재생되어 학술적 의의를 더하게 되었고 우리 문화를 자랑하여 민족의 긍지를 높이면서 신앙의 깊은 정신을 보급하고 격조 높은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하게 된 것이다.¹⁸⁾

인용문은 『불국사 복원공사보고서』에서 밝힌 의의이다. 그 핵심은 문화적으로 가장 찬란했다고 간주되었던 통일신라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유

18)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1976), 『불국사 복원공사보고서』, p.17.

산으로서의 불국사 복원, 그리고 그것을 통한 민족공지의 제고와 격조 높은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에 있다고 생각된다. 이 불국사 복원 공사에는 모든 초점이 ‘문화의 황금시대를 대표하는 통일신라시대의 사찰, 불국사’의 원형을 복원하는데 두어지고 있다. 창건 이후 신라하대와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중수되고 필요에 따라 새롭게 조영된 전각들이 담고 있었을 역사적 변천의 내용은 도외시되고 있다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반면 월산의 불국선원 조영불사는 통일신라시대의 불국사가 아니라, 자신이 몸담고 살아오면서 인식하고 있었던 한국불교의 전통 복원 그리고 선양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불사라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여기에는 두 가지 인식이 동시에 고려되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한 가지는 복원 공사를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자 가람으로 거듭난 관광사찰의 수행도량화라는 의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사찰로서 불국사의 복원은 신라시대의 원형을 복원하는 것으로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불국선원을 개원하고 그 선원에서 납자를 제접하는 참구수행이 이루어짐으로써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겹쳐 있는 것이라고 짐작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 같은 취지는 불국선원 개원식에서 이루어진 불국선원 불사 경과보고에서 “선(禪)이 왕성하면 불교가 왕성하고, 불교가 왕성하면 나라가 왕성한다는 취지 아래 불국사가 복원되었으나 선(禪)·강원이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 선원 건립에 뜻을 두어 직접 지휘 감독, 오늘의 선원이 건립되었다.”¹⁹⁾는 월산의 발언에서도 명료하게 읽을 수 있다.

4. 불국선원의 개원과 의미

19) <대한불교> 1976년 6월 6일자, ‘佛國禪院 역사적 開院’(교육원 불학연구소 편, 2000, 『선원총람』, 『불국사 불국선원』, p.501.)

불국사선원의 시작은 월산이 불국사의 주지로 임명된 직후인 1974년 향곡을 조실로 모시고 안거에 들면서 시작되었다. 이때의 불국사선원은 현재의 선원 건물에 지어지기 이전이었으며, 현재의 불국사 구역에서 진행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수행의 곤란함으로 이어졌을 것은, 관광자원화 된 불국사를 생각하면 그리 어렵지 않다. 그리고 그 곤란함이 현재의 선원 불사로 이어지게 된다.

1976년 당시 불국사 주지였던 월산(月山)스님이 1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만든 것이다. 스님은 현재의 선원 자리를 바라보던 중 이곳만이 눈이 녹아 있는 길지(吉地)임을 알고, 말년에 지낼 토굴을 지으려고 했다. 하지만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국립공원이라는 이유로 반대가 극심해 진척이 되지 않았다. 이에 스님은 불국사 복원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내려온 박정희 대통령에게 말해 청와대가 5천만 원을 지원하는 등 진폭적인 지원을 얻었다. 이에 스님은 이왕 시작된 일 선원을 짓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규모가 큰 선원으로 거듭났다.²⁰⁾

인용문은 불사 과정에 부딪친 어려움을 전한다. 현재의 선원은 1300여 평의 대지에 건평만 156평에 달한다. 큰방과 염화실, 객실, 지대방, 간병실, 다각실, 식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독립된 사찰 곧 별원(別院)으로서, 불국사 경내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조영되어 있다.

큰 방의 선실 구조는 처음에는 문수보살을 모신 방 가운데 방의 양 옆으로 한 층 높여서 좌선 공간을 두었는데, 각자 공부할 수 있는 28개의 작은 방으로 나누어지도록 설계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형식은 한국 전통의 선방 형태가 아닌 중국 선원과 한국 선원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의 것으로, 다년간 중국에 다녀온 바 있는 월산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였다고 한다.²¹⁾

실제의 규모와 넓이로 보나, 큰 방 선실의 독특한 구조로 보나, 거기에

20) 같은 책, p.494.

21) 같은 책, 같은 곳.

쏟은 월산의 심려가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심려 때문인지 불국선원의 방합록은 거의 만실을 헤아리고 있었음을 방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불국선원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범룡, 송담, 일타, 정일, 혜정 등 여러 명안종사가 거쳐 가면서 선풍을 떨쳤다. 무엇보다 경허 만공-보월-금오로 이어지는 덕숭선맥을 이은 월산의 지도와 가르침으로 불국선원은 일시에 번성기에 들었다.

『선원총람』에 의하면, 불기 2524(1980)년 하안거부터 불기 2543(1999)년 하안거까지 불국선원에서 안거를 난 대중의 인원수는 1981년 하안거와 1982년 하안거를 제외하고도 외호대중을 포함하여 총대중이 1048명에 이르고 있다. 월산은 불국선원 개원 이후부터 입적하는 1997년까지 선원을 이끄는 조실로 주석하면서 선원의 수좌를 제점함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1982년부터 1984년까지는 월산의 제자인 법달이 선원장으로서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1995년부터 월산이 입적하는 1999년까지는 다시 종우가 선원장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 외의 기간에는 대부분 조실-입승-열중 혹은 청중의 체제로서 대중을 구성하고 있다. 그런데 입승과 청중에 이름을 올린 스님들의 본사를 살펴보면 전국 대부분의 본사를 망라하고 있어서, 월산 가풍 아래 참구하고자 모여든 전국 수좌들의 열기가 대단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980년 7월 20일자 「대한불교」에서는 불국사 불국선원을 소개하면서 “현재 전 총무원장 혜정(慧淨) 스님 등이 이곳에서 정진중이며, 선원의 짧은 연혁과는 달리 범룡(梵龍)·송담(松潭)·일타(日陀)·법달(法達) 스님 등이 이곳에서 정진했다.”²²⁾고 특기하고 있다. 한 시대를 이끌었던 수행자들의 면면이 길지 않은 역사의 불국선원에서 보이는 것은 그만큼 불국선원을 빠른 시간 안에 안정시키고자 하는 스님의 의지가 작용했음을

22) <대한불교> 2980년 7월 20일, 「선원순례-불국사 불국선원-월산조실 새 가풍 진작」.

보여주는 것이고, 동시에 시대를 이끌어갔던 월산의 선지식다운 면모가 불국선원에 그대로 투영되었던 까닭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선원이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안착한 것은 무엇보다도 불국선원의 조실로서 바깥살림보다 안살림에 치중했던, 그랬기에 찾아드는 납자들의 제접에 소홀하지 않았던 스님의 원력이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월산이 주석하셨던 동안에도 그리고 현 선원장 종우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고수되는 선원 운영의 방침은, 월산이 지향하고 실천했던 가풍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준다.

월산스님이 세운 방침이 제자인 현 선원장 스님 대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월산스님이 조실로 주석할 때 동안거 때 용맹정진과 가행정진을 했었다. 10여년 그렇게 이어갔다. 하지만 월산스님이 용맹정진을 못하게 했다. 스님은 다른 선원에서도 그런 규칙을 정했었다. 종우스님은 “나를 비롯 여러 스님들이 용맹정진 하자고 강력하게 말씀 드렸는데 끝내 허락하지 않으셨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직 참선에만 매진하라는 것이 그 이유였지.” 참선 공부 더 하겠다는데 참선 공부에만 매진하라니. 선원장 스님은 “조실 스님은 용맹정진을 하다보면 참선이라는 본질은 간 데 없고 그 형식만 남을 것을 우려하셨지. 무엇보다 참선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셨어.”²³⁾

월산은 용맹정진과 가행정진을 못하게 막았는데, 그 의도가 “조실스님은 용맹정진을 하다보면 참선이라는 본질은 간 데 없고, 그 형식만 남을 것을 우려했다.”는, 그리고 “참선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셨다.”는 현 선원장 종우의 전언에서 스님이 지향하신 독특한 가풍의 여전함을 엿볼 수 있다. 타성일편(打成一片), 평상의 마음이 부딪치는 하나하나의 경계에서 주객분별을 넘어 일체에 통하게 되는 그 자리를 평상의 삶에서 놓치지 않아야, 비로소 정진다운 정진이요 그것이야말로 수행자가 되찾아야 하는 본분사라는 경계의 말씀일 것

23) 「경주 불국사 불국선원」, <불교신문> 2006년 10월 21일.

이다. 그리고 미루어 추정해보자면, 그 말씀의 자리야말로 스님이 불국선원과 제방선원의 조실로서 추구했던 바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월산이 불국선원 조실로서 일구어 가고자 하는 가풍이 당시의 용맹정진, 가행정진하는 가풍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독자의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본질과 형식 간에 두어져 있는 거리, 그것이 제방의 선원을 마다하고 불국사에 다시 불국선원을 개설하게 된 독자적인 가풍을 진작하고자 했던 의도와 무관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 독자적인 가풍의 특징은 ‘형식’에 치우치는 것을 경계함에 그 한 특징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선원불사를 할 때, 굳이 재래식과 중국식을 절충한 구조를 월산이 직접 설계했다는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형식보다는 내실, 그 실질에 수행의 본래면목을 두고 추구했던 모습이 드러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굳이 불국선원을 개설했던 스님의 독자적인 가풍의 추구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불국선원을 새롭게 창건하고 난 직후에 당시 『대한불교』(불교신문의 전신)의 편집국장장을 맡고 있던 향봉과 대담한 기록이 있다.²⁴⁾

지난 달 불국선원(佛國禪院)의 개원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불교 선종사(禪宗史)에 새로운 선을 그은 게 분명합니다. 재래식 한국선원의 장점과 중국 총림선원의 장점을 적절히 절충하여 선불도량(選佛道場)의 면모를 혁신 시킨 것으로 매우 의의가 깊고 크다고 하겠습니다. 스님께서 불국선원의 원장 스님으로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요즘의 심경(心境)도 곁들여주시고요.

“훤 중이에 먹물 칠한 게나 다를 바 없지. 지금 내 기분은十方세계(十方世界)가 내 뱃속에 들어있는 느낌이지… 하하하.”²⁵⁾

선원 개원에 대한 스님의 답변이다. 탐방을 마치고 나서는 세 스님의 등 뒤에 월산이 다시 말씀을 남기셨다고 향봉은 적고 있다. “시방세계일

24) 이 기사에 의하면 오현스님과 정휴스님도 함께 동참한 자리였다.

25) 향봉 스님 대담, 『불국사 불국선원 조실 월산스님』, <대한불교> 1976년 7월 4일자 연화실 탐방.

집안(十方世界一集眼)하라.”

IV. 맺는 말

지금까지 월산의 불국선원 개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부족하나마 검토를 진행해보았다.

논자가 가장 고심했던 것은 스님의 불국선원 개원을 어떤 시각에서 포착해야 그 의미를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그 부분에서 가장 많이 시야를 흐린 부분이 바로 불국사 복원공사였다. 스님이 불국사에 주지대행으로 부임하시기 직전에 불국사 복원공사라고 하는 대역사가 진행되었고, 주지로 발령받은 이듬해 1974에 불국선원이 개원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새로운 별원으로서 선원이 독립적인 공간을 가지게 된 것은 1976년에서야 가능했지만, 사실상 스님이 불국사 주지로 부임한 후 첫 번째의 불사가 불국선원이었고, 그것이 복원공사가 끝나는 시점과 맞물려 있다는 것은 미묘한 교차점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앞부분에서 불국사 창건 당시의 조영과 중수기록을 간략하게나마 검토한 것은, 복원공사가 끝난 직후 부임하자마자 왜 선원개원을 서둘러야 했는가 하는 고민과 맞닿아 있다. 불국사 창건기인 8세기 중반의 불국사에 초점이 맞추어진 불국사 복원공사와 근현대 한국불교의 임제종 중심의 전통복원과 계승에 대한 인식이 철저하던 스님의 불국사선원 불사를 별개의 것으로만 볼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결론삼아 언급하자면, 월산에게 있어서 당시 정부에 의해서 진행된 불국사 복원공사는 1973년 7월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미완성이었지 않을까 하는 점이고, 불국선원 불사는 그 복원공사가 마무리된 시점을 진정한 출발점으로 삼아 근현대 시기 본분종사들이 지녔던 한국불교의 전통을 복원하는 데서 마무리된다는 의식이 없었을까 하는 의

미를 선불리 부여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불국선원에 그치지 않고, 부인선원을 개설하여 경주시내의 재가자들이 스님이 생각하는 전통에 걸맞은 수행을 하도록 이끌어냄으로써, 신라시대의 불국사와 고려시대의 불국사가 경주의 중요한 중심 역할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행을 넘어서 닦음에 이르는 불자들의 경주를 기획한 데서도 그 심려의 한 편린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참고문헌

- 『위서(魏書)』, 「석노지(釋老志)」
 『고려사(高麗史)』, 「세가(世家)」권제1.
 道宣 撰, 『續高僧傳』, 「釋曇曜」, T(대정신수대장경) 50.
 동은(東隱), 『불국사고금역대기(佛國寺古今歷代記)』(혹은 『불국사고금창기(佛國寺古今創記)』)
- 교육원 불학연구소 편, 『선원총람』, 2000.
 김상현 외, 『불국사』, 대원사, 1992.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불국사 복원공사보고서』, 1976.
 배진달, 『연화장세계의 도상학』, 일지사, 2009.
 월산문도회, 『월산선사법어집』, 1998.
 한국불교연구원, 『한국의 사찰1 - 불국사』, 일지사, 1974.
- 김광식, 「봉암사 결사의 전개와 성격」, 『한국 현대불교사 연구』, 불교시대사, 2006.
 _____, 「정금오의 불교정화운동」, 『불교학보』 57, 2011.
 김복순, 「신라 유가계 불교-8·9세기를 중심으로-」(『한국 고대불교사연구』, 민족사, 2002, 재수록), 1992.
 김상현, 「석불사 및 불국사에 표출된 화엄세계관」, 『신라화엄사상사연구』(민족사, 1991, 재수록), 1991.
 성본, 「선원의 역사」, 교육원 불학연구소 편, 『선원총람』, 2000.
 최연식, 「표훈의 일승세계론과 불국사」, 『불교학보』 70, 2015.
 황수영, 「불국사의 창건과 연혁」,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불국사복원공사보고서』, 1976.
 향봉 스님 대담, 「불국사 불국선원 조실 월산스님」, <대한불교> 1976년 7월 4일자 연화실 탐방.
 박부영, 「금오스님과 불교정화운동⑫」, <불교신문> 2015년 2월 4일자 <불교신문> 2006년 10월 21일자, 「경주 불국사 불국선원」.

Abstract

Ven. Wolsan and the Seon Center of the Bulguksa Temple

: Focusing on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meaning of establishing the Center

Seok, Gil-am

(Professor, Gyeongju Campus, Dongguk University)

Bulguksa Temple has changed into what we can see today through the restoration between May 1969 and July 1973. However, if one wants to recognize Bulguksa as one of the representative temples of modern Korean Buddhism -- not as a temple representing the Buddhist culture of Silla, one needs to pay attention to establishing and developing process of the Seon Center of the Bulguksa Temple. And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Ven. Wolsan who worked hard to open the center and teach monks, and know the characteristics of the center.

Taking note of this point, this paper expounded that the 'Bulguksa Restoration Project' and 'Establishing and Operating the Center' were based on different historical and cultural backgrounds. It is noted that the ideological foundation for establishing the Center was different from that for constructing the Temple, from the time of founding the Temple to the restoration completed in 1973. And this point, the meaning of Ven. Wolsan's establishing and operating the Center is clearly able to be understood.

Despite its short history, the Seon Center was sensational and famous owing to many great masters like Ven. Beomryong, Ven. Songdam, Ven. Il-ta, Ven. Jeong-il, and Ven. Hyejeong. Most of all, the Center began to flourish thanks to the guidance and teachings of Ven. Wolsan who following the Mt. Deoksung Linage that led from Ven. Gyong-heo to Ven.

Man-gong, Ven. Bo-wol, and Ven, Geumo. The Center's settling in spite of a short period of time could be seen as the result of a guiding teacher of the Center, Ven. Wolsan's efforts to focus on teaching monks.

Key words

Ven. Wolsan, Ven, Geumo, Bulguksa Temple, the Seon Center of the Bulguksa Temple, Buddhist culture of Silla, modern Korean Buddhism